광주·전남 6년새 졸음운전 사고 1천여건

전남 사망자 수 66명 전국 16개 시·도중 4번째 많아

추석연휴 승용차 이용 증가 전망…운전자 주의 필요

최근 6년 사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1천299건 발생해 70명이 사망하는 등 졸음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추석을 앞두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분석한 졸음운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1만3천747건 발생해 567명이 사망하고 2만7천149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광주에서는 253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8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전남에서는 1천46건이 발생해 66명이 숨지고 1천976명이 다쳤다.

전남지역 사망자는 경기도 88명, 경남 76명, 경북 71명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다.

전국 1만3천747건의 졸음운전 교통사고 중 경기에서 3천79건이 발생해 전체의 22.4%를 차지했고, 이어 서울(1천714건), 경남(1천214건), 경북(1천117건), 전남 순으로 많았다.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해 졸음운전 사고 사망자 101명 중 경남이 20명(19.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 15명(14.9%), 충북 14명(13.4%) 순이었다. 광주와 울산은 사망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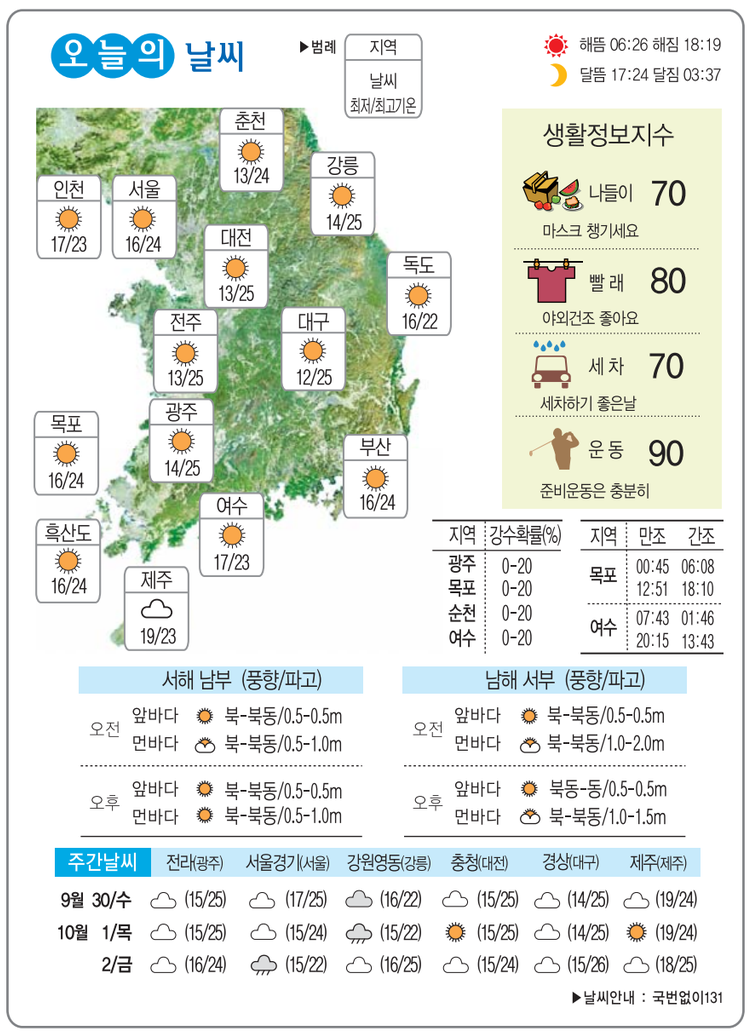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도로 종류별 졸음운전 사고현황을 보면 지방도(시·군도 포함)에서 가장 많은 6천204건이 발생했으며, 특별 광역시도 3천829건, 일반국도 2천428건 순이었다.

도로 종류별 졸음운전 사망자는 지방도 214명, 일반 국도 152명, 고속국도 139명이었다.

지난해 도로별로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위험지역 시도별 순위를 보면, 고속도로는 경북(6명 사망), 일반국도 강원(8명 사망), 지방도 경북(10명 사망), 특별광역시도 대구(2명 사망)·대전(2명 사망) 등이었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고속도로에서는 10건이 발생해 사망자 없이 35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일반국도는 67건 발생·5명 사망·132명 부상, 지방도 111건 발생·5명사망·187명 부상 등으로 집계돼 일반국도나 지방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지난해 전국에서 교통사고 발생 68.6건당 1명이 사망한 데 비해 졸음운전은 28.6건당 1명이 사망하는 고위험성을 보이고 있다"며 "올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보다 자동차 이용이 늘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예방에 범정부적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



구청에서 펼쳐진 '전통시장 상생장터'

추석을 앞두고 위드 코로나, 공직자 지역동행 프로젝트 일환으로 28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말바우 꾸러미 상생장터'를 찾은 공무원과 시민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이날 장터는 북구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은 말바우시장과 함께 마련했다. /김애리 기자

동구, '지자체 생산성 대상' 대통령 표창

광주 동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평가에서 생산성지수 1위 달성과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꼽히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역량을 가늠하는 이번 평가에서 동구는 ▲생산성지수 1천점 만점에서 810.65점 획득으로 대상 수상 ▲'상생협의회를 통한 마을문제 해결 및 공동체 역량강화 사례'가 생산성 우수사례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1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내부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 생산성 지수는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170개 자치단체가 자율 응모했다. 이중 최고 점수를 받아 대상을 수상한 동구는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취업자 증가율 12.32%(전국 평균 3.59%)을 보였고, 사회복지시설 수에서도 지역주민 1만명당 9.84개로 전국 평균(4.79개)을 훨씬 상회했다. /오승지 기자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해도 수능 치른다

정부, 대입 관리계획 발표…1주전부터 고교 원격수업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올해 12월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시험실 당 수험생 인원은 최대 24명으로 제한되고 수능 시험장마다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실이 마련된다.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각각 별도시험장, 병원·생활 치료시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수능 일주일 전인 11월26일부터 전국 고3을 비롯해 고1과 고2 역시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시험실 당 인원은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낮추고 수험생 책상 앞에 칸막이를 설치한다.

아울러 수험생을 일반 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나눠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일반 수험생을 대상으로는 발열 검사를 해 미발열자는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른다.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본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시험장별로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을 5곳 내외로 확보할 방침이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본다. 확진자의 경우 병원이나 생활 치료시설에서 감독관 보호 조치 하에 수능을 치른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대학별 평가도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구, 코로나 '마음토닥키트' 배부

광주 서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장애인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음토닥키트'를 제작·배부한다.

28일 서구에 따르면 '마음토닥키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식사, 개인위생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질환 및 우울 고위험군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키트는 코로나19 예방 수칙 안내 및 심리지원 리플릿과 즉석식품, 샴푸, 마스크, 손소독 티슈 등 개인 위생관리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품들로 구성됐다.

제작된 키트는 정신보건팀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250세대에 전달됐다. /최명진 기자

市시각장애인복지관, 언택트 프로그램 제공

광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계속되는 휴관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영상과 음성파일로 제작 및 제공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관은 그동안 이곳에서 진행해 온 요가교실, 굿볼교실 프로그램을 자택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촬영, 음성파일과 함께 전달했다. 동영상을 볼 수 없는 중증 시각장애인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명심보감,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음성으로 녹음해 전달했다.

또한 뜨개질교실 이용자를 위해 자택에서도 뜨개질할 수 있도록 실을 전달했다.

기존 프로그램 외에도 언택트 시대에 맞춘 새로운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초·중·고·대학생 시각장애인과 여성 시각장애인을 위해 라탄공예 키트와 동영상, 제작방법 설명서를 동봉해 전달했다. 가족과 함께 제작 후 인증사진을 남긴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키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임후성 기자